

# O2O서비스,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네이버, 'NeurIPS 2022'서 두 자릿수 논문 발표**  
네이버가 세계 최고 권위의 AI 학회 'NeurIPS 2022'(신경 정보처리시스템학회)에서 두 자릿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NeurIPS에서 네이버는 총 11편의 논문(네이버 클로바 8편, 네이버랩스유럽 3편)을 발표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네이버



**창진원, 'K-STARTUP 통합관' 발대식 개최**  
창업진흥원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를 앞두고 'K-STARTUP 통합관' 발대식을 열었다. 5일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CES에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K-STARTUP 통합관'을 운영해 국내 유망 창업기업 50개사의 미국 진출을 돕는다. /창업진흥원



**코오롱그룹, 전국 사업장서 헌혈 캠페인 전개**  
코오롱그룹이 연말에도 피를 내놨다. 코오롱그룹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전국 사업장에서 '헌혈하고 송년 회하세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코오롱은 헌혈 후 헌혈증을 기부받아 소아암을 앓는 환아를 위해 기증하고 있다. 그동안 5800여장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코오롱그룹

## 인사

◆삼성전자 ◇승진김주준 삼성전자 DX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 사장△이영희 삼성전자 DX부문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남석우 삼성전자 글로벌 제조&인프라 총괄 제조담당 사장△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 겸)반도체연구소장 사장△백수현 삼성전자 DX부문 커뮤니케이션팀장 사장△박승희 삼성전자 CR(Corporate Relations)담당 사장△양결 삼성전자 중국전략협력실장 사장◇위촉 업무 변경△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CTO 겸)Samsung Research장 사장△승현준 삼성전자 DX부문 Samsung Research 글로벌R&D협력담당 사장  
◆인사혁신처 ◇실장급 정보소스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인호◇과장급 정보소인재채용국 공개채용1과장 조현은

## 부음

▲권필남 씨 별세, 김영환(울산시 중구 기척예산실장) 씨 모친상 = 5일 오전, 진주 한일병원장례식장 103호, 발인 7일 오전 7시. 055-756-9009  
▲김복희씨 별세, 박철균(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담당)·박은경·박민경·박순경씨 모친상, 윤성준(유즈와 대표)·김지욱(코어브리지파이낸셜 근무)씨 장모상 = 4일 오후 8시,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02-3779-1526



이 상 현  
창업 칼럼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8%)보다 높다. 달리 말해 국내 자영업 시장은 과당 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근래 자영업자들의 위기의 가속화도 현실이다. 폐업자 수는 2015년(79만50명)부터 계속 증가세고, 팬데믹 이후에는 더 극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120만 8076명이 문을 닫았고, 올해 폐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 즉, 온라인을 통한 소비의 증가로 오히려 소상공인들

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외식업시장의 배달 앱 시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O2O 서비스를 제공한다. O2O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사업형태를 뜻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전자상거래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쓴다.

배달 앱시장에서는 배달의 민족, 택시 앱에서는 카카오택시, 숙박 앱과 부동산 앱에서는 여기어때와 직방이 각각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나열된 O2O 서비스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우리 생활에 있어 큰 편의성을 안겨주고, 이미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들이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외식업 관련 O2O서비스인 배달 앱시장은 무섭게 성장 중이다. 2013년 87만명의 사용자가 3647억의 매출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046만명이 1조 5000억원, 2017년에는 2500만명이 약 3조의 거래액을 발생시켰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팬데믹 시대에 선 2021년에는 3400만명이 약 6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온라인을 통한 구매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하락과 실업률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나홀로 1인세대의 증가 그리고 저출생 등 인구밀도의 변화와 야식문화가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비성향의 변화가 어쩔 수 없는 영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에 대한 순응이 배달 앱이라는 거대한 공통마케팅에 종속되는 현

상을 가속화 중이다. 자영업 시장은 여기서 위험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배달 앱에서 1개 사업장은 월 평균 13만원을 투자해 400만원의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달 앱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한정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수단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한 수익성 하락은 곧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카카오나 우버 등 빅테크 기업들의 앱시장으로의 진입은 더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자영업시장의 계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차가운 현실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합리적 지원방향과 운영대책을 수립해주길 희망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조사(건설철학 박사)

## LS일렉트릭, 제10회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

# 구자균 회장 “바다 속 아름다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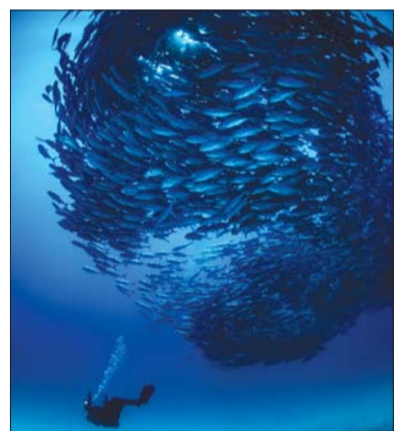
최우수상 ‘잭피쉬의 얼굴’ 선정  
내년 1월 중순까지 수상작 전시

LS일렉트릭이 10년째 수중사진 공모전을 이어가며 바다의 아름다움과 환경 보존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LS일렉트릭은 5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제10회 LS일렉트릭 전국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시 수중·핀수영협회와 함께 2013년부터 이어온 공모전으로, 수중 세계 신비로움을 공유하고 바다를 푸르게 보존하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구자균 회장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구 회장은 스킨스쿠버 마니아로, 공식 다이빙 기록 2000회와 3분40초 무호흡 기록, 스쿠버 강사 자격을 보유하고 서울시 수중·핀수영협회



LS일렉트릭 전국 수중사진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수연 작가의 '잭피쉬의 얼굴'

장도 맡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9월까지 ▲수중사진 ▲해양환경 2개 부문에 총 250여점의 작품을 접수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중사진 부문 20점, 해양환경 20점 등 총 40개 작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이수연 작가의 '잭피쉬의 얼굴(Face of Jackfish)'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양충홍 작가의 '꽃밭의 휴식' ▲임재훈 작가의 '최고의 선물' ▲전민석 작가의 '중재자' 등 3개 작품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장려상 6개, 입선 10개 작품이 입상했다.

LS일렉트릭은 내년 1월 중순까지 LS타워와 LS용산타워 1층 로비에 수상작을 전시해 일반인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구자균 회장은 “바다 속 아름다움을 사진으로나마 함께하고 국내 수중사진 작가들을 발굴, 후원하기 위해 시작된 공모전이 어느덧 10년째를 맞아 뜻 깊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바닷속 풍경을 지켜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CJ그룹

### 이웃사랑 성금 20억 기탁

CJ그룹이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20억 원을 기탁하고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활동을 전개한다.

CJ는 나눔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180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소외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문화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1인 가구 청년 착한 먹거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일 서울 강남구 구름마을에서 열린 사랑의 연탄나눔 전달식. /오비맥주

## 오비맥주

###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오비맥주는 2일 임직원들로 구성된 나눔 봉사단이 강남구 구름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구자범 수석 부사장과 30여명의 나눔 봉사단은 이날 서울연탄은행에 1000만원 상당의 연탄 1만 2500장을 기부하고 이 중 2000장의 연탄을 강남구 구름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취약계층 10가구에 직접 배달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눴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중기부 이달의 상생볼 ‘삼전·SKC·포스코·철도공·국민銀’ 선정

특히 무상양도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에 '이달의 상생볼'로 삼성전자, SKC, 포스코, 국가철도공단,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삼성전자는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해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기반으로 새 분야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4건의 기술 양도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총 32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 51건을 무상으로 양도했다.

SKC는 2017년 설립한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R&D) 분석, 사무공간 제공 등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플랫폼 참여 전문기관(18개 기관)과 매월 시장정보, 기술가치 분석, 금융조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네트워킹데이를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철강 ESG상생협력펀드를 조성했다.

현재 41개 기업들이 철강 ESG상생협력펀드를 통해 시중금리 대비 낮은 우대금리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았다.

포스코는 또 566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특별펀드를 조성해 354개 기업이 4415억원을 저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개량사업의 현황과 계획, 사고사례를 협력사와 공유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사들을 포함한 전 구성원들이 철도 개량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철도 개량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KB국민은행은 '하이파이브 KB 굿잡 취업학교'를 실시해 특성화고 3학년 112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bada@